

-거든요

~거든요 (상대가 모르는 이유 설명)

듣는 사람이 몰랐던 이유를 알려 줍니다. 상대가 이미 아는 것을 상기시키는 -잖아요와 정반대입니다.

■ 결합 방법

상황	형태	예
모든 동사·형용사	-거든요	바쁘다 → 바쁘거든요
ㄹ 어간은 ㄹ 유 지	-거든요	만들다 → 만들거든요
과거	-았/었거든요	갔거든요
이다	-(이)거든요	학생이거든요
반말	-거든	바쁘거든
이미 아는 정보에 는	-잖아요	바쁘잖아요

■ 언제 쓰나요

어떤 어간에는 -거든요를 붙입니다. 모음 규칙이 없고, ㄹ은 그대로 남으며, 시제는 앞에 넣습니다: 갔거든요, 좋았거든요. 명사에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필요합니다: 학생이거든요.

가장 흔한 쓰임은 설명입니다. 왜 일찍 가느냐는 질문에 약속이 있거든요라고 답하면, 상대방에게 없던 정보를 채워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설명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그냥 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들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씁니다. 어제 시장에 갔거든요. 그런데...는 장면을 깔아 두고 뒤에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신호를 줍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입니다. 듣는 사람이 이미 아는 것을 말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그때는 -잖아요를 쓰며, 둘을 바꾸면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가 뒤바뀝니다.

■ 예문

- 1 먼저 갈게요. 약속이 있거든요.
- 2 오늘은 좀 바쁘거든요. 내일 만날까요?
- 3 어제 시장에 갔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 4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 5 제가 아직 학생이거든요. 할인 되나요?
- 6 이 빵은 제가 만들거든요. 한번 드셔 보세요.

■ 비교

-잖아요
두 표현은 누가 알고 있느냐로 나뉩니다. -거든요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 주고, -잖아요는 이미 아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반대로 쓰면 혼란스럽거나 심하면 무례하게 들립니다.
바쁘거든요. (상대가 몰랐던 정보) / 바쁘잖아요. (상대도 아는 정보)

-아서/어서
-아서는 한 문장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잇고, -거든요는 이유를 별도의 말로, 대개 나중에 덧붙입니다.
바빠서 못 가요. (바빠서 갈 수 없다) / 못 가요. 바쁘거든요. (갈 수 없다. 바빠기 때문이다)

-(으)ㄴ/는데
-는데는 화제를 꺼내고 말끝을 흐리며, -거든요는 설명을 맺습니다. 같은 대화에서 나란히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바쁘네요. (바쁘데... 하고 여지를 남김) / 지금 바쁘거든요. (바빠서 그렇다는 설명)

■ 주의

- X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 둘 다 뻔히 아는 상황에서 (X)
○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거든요는 정보를 새로운 것으로 제시합니다. 듣는 사람이 직접 알 수 있는 사실에는 -잖아요를 씁니다.
- X 제가 학생거든요.
○ 제가 학생이거든요.
명사에는 이 어미 앞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필요합니다. -잖아요와 -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 X 부장님, 그건 이미 끝났거든요.
○ 부장님, 그건 이미 끝났습니다.
윗사람에게 -거든요로 설명하면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대신 평범한 격식체 서술문을 쓰세요.